

##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김원재 목사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중에 '영광(榮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거룩'과 더불어 '영광'은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영광'은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날 때는 구름 속에 그 '영광'이 나타났고, 시내산에서는 구름과 함께 '영광'이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영광'이 후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영적 가르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화되었습니다. '영광'이 사람과 함께하신다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못할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한자어로 볼 때 '영화로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살펴보면, 영광은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쓰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 수석입학의 영광'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우리말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이미지는 이와는 다릅니다.

구약성경에서 등장하는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본성, 그리고 현존하심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거움, 무게, 가치 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어근 '카보드'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말은 조금 의역하면 '부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광채와 영화로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인해 갖고 계신 '부담'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부담감'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담으로 그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내셨고, 그 부담감으로 인해 죄로 죽어 가는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담이 최고로 이른 자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의 무게가 느껴진 자리,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조는 '십자가 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담감(카보드; 영광)으로 인해 고통당하셨고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카보드; 부담, 무게)으로 다시 살아 나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길 원하는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분은 영원히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부담(카보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 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며 그들의 구원을 걱정하시며 애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세상을 위한 수고와 피흘리심의 부담이었습니다. 그 애쓰심의 무게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오게 하는 거룩한 부담의 영광입니다.

# 함 무 즐 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27호 (격월간)

발행일 2000년 11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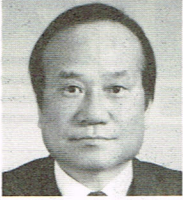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T. 416-5181~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Lord-church.or.kr>

## CONTENTS

- 1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 김원재 목사
- 2  
사랑으로 남북화합을, 바른 삶으로 통일을 / 오세윤 안수집사
- 3  
항상 채워 주시는 하나님 / 신성숙 권사
- 4~5  
특집 / 특별새벽기도를 마치며
- 6  
겸연쩍은 미소 / 장우형 집사
- 7  
신앙클리닉  
교회예절  
교회소식  
성경퍼즐
- 8  
건강상식 / 김경빈 안수집사  
시 / 신철범 목사



## 사랑으로 남북화합을, 바른 삶으로 통일을

오세윤 안수집사(57구역)

새 천년 첫 해,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앉아, 7천만 배달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한 미래를 약속하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6. 15 공동선언, 이산가족 상봉,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세 차례의 장관급 회담, 적십자 회담, 경의선 복원 공사 기공, 올림픽 개폐회식 동시 입장 등 숨가쁘게 남북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의 상처와 한이, 대결과 상호 불신이 어디 그리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둘러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의 역량을 키워내어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내지 않는다면, 분단 일세대들의 피끓는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다는 절박한 사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는 막대한 통일 비용, 국내의 정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절실한 마음 자세, 새 땅, 새 하늘, 새 질서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창출해야만 한다는 꿈과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은 사랑과 진리,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현실은 사랑이 메말라 있고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으며, 교육의 현실은 국제화, 정보화, 나눔의 시대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합을 이루어 가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 특히 국민의 25%를 차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가정에서부터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입어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었으며, 이스라엘 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으나, 불행하게도 그의 말년은 자만과 많은 이방 처첩들에 의한 우상 숭배로 타락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부와 영광도 그를 떠났고, 그의 아들에 의해서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바르게 양육하여야 하겠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고, 어린 사무엘을 양육한 대제사장이었으나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직을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집에서 성장하며 엘리에 의하여 조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엘가나와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행하는 삶의 신앙으로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사로서 자신의 전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이방 열국으로부터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

렸습니다.

셋째,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유럽의 목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돈밖에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명예·정욕 등 세상의 온갖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세 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 예의를 다하며, 언제나 상대의 수준에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 즉 자기희생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사랑은 진리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바른 신앙의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통일된 조국을 예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욕망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남북 화합을 이루어가고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통일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 질서로 이 땅을 아름답고 공의로운 새 땅, 새 하늘로 일구어, 통일된 조국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그 거의 하고 함께 을 라  
에서는 원 그 를 모 집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 항상 채워 주시는 하나님

신성숙 권사(30구역)

저는 주님의교회에 1989년 9월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로서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좀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래야만 무엇이든지 완벽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제 성격의 힘들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 힘든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새벽기도에 참석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저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하며 한순간에 내 이기심과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자기 자신을 묶고 있던 힘든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990~1996년까지 계속 전도상을 받았으며 1990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평양노회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 예수님께서서는 또 나태해져 있던 저를 찾아 오셨고, 예수님과 기도하기로 약속했던 시간에 잠자고 있던 저를 예수님의 손길로 깨워 주셨습니다. 그 손길을 저는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남의 이야기 같았고 뭔가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저는 그때 다시 한 번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당건축 헌금을 제목으로 기도를 하던 중, 어느 권사님 따님 결혼식에서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하는 교인을 위해 피로연 음식을 여집사님들이 마련해 주면 그 수익금으로 건축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손님들을 많이 치뤄 보았고 20여 년간을 약사회에 몸담아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주관해 보았기 때문에, 몇 백 명의 하객을 대접하는 일이 크게 불가능한 일이라곤 생각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한 집안의 대사를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예식 음식을 성의있게 마련하고 우리의 친절한 봉사의 모습으로 인해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여선교회 회장이신 이경희A 집사님께 결혼식 음식을 우리가 해보자고 강력하게 제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저는 기도과 더불어 요리학원도 다녔고 시간만 나면 요리책을 보며 연구를 하고 다른 교회의 예식을 찾아가자문도 구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봉사 덕분에 지금까지 커다란 실수 없이 예식을 치루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예식부를 시작할 때, 그릇이며 요리기구가 하나도 없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힘든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인공조미료를 쓰지 않고 배즙·양파즙·마늘즙 등의 향신즙을 만들어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 녹즙기로는 용량이 적어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날도 예식부 일 때문에 시장을 봐다 놓고 집으로 들어가며 큰 녹즙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용량이 제법 큰 녹즙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경비 아저씨께 물어보니 어느 가정에서 새 녹즙기를 샀기 때문에 이것을 내다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몸이 오싹해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뷔페 식당에 흰 모조지를 깔아 쓰다 보니 반찬국물 같은 것이 떨어지면 얼룩이 지고 지저분해졌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흰색 옥스퍼드지를 깔고 그 위에 두터운 비닐을 덮었으면 했지만 그 형국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하여 건축헌금을 더 많이 하고 싶었던 우리로서는 그 천을 선뜻 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식 음식을 준비하려고 교회에 간 저에게 교회에서 일을 하시던 박 집사님이 제가 원했던 그 흰색 천이 둘둘 말린 엄청 큰 보따리를 저에게 내밀며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성도님이 이 천을 교회에 드릴 테니 쓸데 있으면 쓰라고 주시고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성도님을 통해 저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 주시는데, 어찌 감사와 찬송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일주일에 네 번이나 예식을 치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힘든 내색 한 번 안하고 어찌다 피치 못할 일로 빠지길라도 하면 너무 미안해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을 보며 저는 더욱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 예식부 일을 2년 가까이 하면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한마음이 되어서 하다보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친언니, 동생보다도 더 가까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쳐다보며 교회로 향합니다.

나와, 또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원숙 집사(38구역)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다. 우리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바쁘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 온 성도가 동참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날을 기도로 준비하였다. 새벽 찬양을 위해서는 교통편이 어려운 교우들을 실어 나르려고 부산을 떨기도 하였고, 저녁 약속을 모두 미루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단단히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적의 아픈 기억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치유 받을 나의 성품을 내어놓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거룩한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장은 다음과 같다.

내면 깊은 곳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며, 상대를 존중하고 사건의 이면을 바라보라 하시는 영혼의 창,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려고 성령께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겪으며 치유를 받게 하시는 기억의 창,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는 이야기의 창,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옛날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치유를 받은 후,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십자가의 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



### 특별새벽기도때 만난 하나님

이응분 집사(6구역)

우리 부부는 버릇처럼 “정년 퇴직만 하면 바닷가 작은 마을에 가서 산다”고 말한다.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세상적인 경제성도 전혀 없다. 문화적으로 편리한 것은 더욱 없다. 그런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오직 그곳만 간다고 한 것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번 특별새벽기도를 통하여 확실한 이유를 알았다. 그곳은 안방에서도 마루에서도, 작은 방에서도, 부엌에서도, 목욕탕에서도, 창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창문에는 바다와 작은 섬들과 태양과 달과 별과 물새들이 보인다. 조용한 모래사장에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된다. 강렬한 햇빛으로 “빛”의 역할과 짙 바닷물 맛으로 “소금”의 역할을 느끼며, 끝없는 넓은 바다를 보면 오염된 모든 것을 수용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다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모래사장에 난 수없이 많은 발자국 같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늘 파도같이 어루만져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나는 하나님을 잊고 딴 생각을 해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속삭여 주는 파도 소리를 만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입만 열면 버릇처럼 한 말을 바꾸어야 겠다. “아무 곳든지 좋다.”

요즈음 우리가 사는 동네는 “헌 집 헐고 새 집 짓자”가 유행처럼 되어 주위가 어수선하고 소리도 굉장하다. 그래서 거실도 창문도 커튼까지 열어 놓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영혼의 창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창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골방에 처박혀 아파하고 고통할 때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 2주간 특별새벽기도를 마치며

황정매 집사(5구역)

새벽 미명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켜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갖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2주간 특별기도에서 다원화된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밀한 문제까지 다루시며 대화 나누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좌절·체념·불안·반신반의 속에서도, 감사·희망·평강 가운데서도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위기 모면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감사·기쁨으로 확신 속에서 은근한 희망과 기대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지칠 때 나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때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 내 손을 붙들어 일으켜

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한밤중에 창을 열어 알려 주시는 꿈의 창, 자신의 문제를 치유 받고 삶의 방식을 바꿔서 치유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 상처 입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바꿔 소중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창, 책을 통해서 좋은 상담자를 만나며 고통받는 자를 돕게 하는 독서의 창,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사고를 바꾸게 하여 주고 회개하게 하는 성서의 창,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는 언어의 창,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만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알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창을 열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셨다.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분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거룩한 중심을 세워 가는데 있으므로, 여러 창들을 통해 치유하심을 받고 제대로 커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힘써야 하겠다. 날마다 열어 주시는 창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렸고, 꿈의 창이나 십자가의 창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예언(?)처럼 크게 변화 된 것은 없는 듯 싶다. 단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여러 창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언젠가 예수님 곁에 갈 때가 되면 얼마나 내 모습이 달라져 있을는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 주시는 그분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찔림과 아픔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것도 '영혼의 창'을 통해서이다.

나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헤매는 내 모습은 어떠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도 목소리 큰 성도의 기도 속에 만나는 하나님을 엿보았고, 깊은 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에 질려서 성경책만 조용히 넘기는 나였고, 늘 배고픈 백성이라 한 끼만 굶으면 못 참는 나였기에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를 우러러 보았고, 방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를 보면 믿음이 없어 방언조차 받지 못한 내 모습이 한없이 작게만 보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두려운 하나님으로 계셨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늘 만날 수가 없었고, 만나는 것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만큼 두둑한 배짱 또한 없었다.

이런 나에게 좋은 가을날 두 주 동안 새벽마다 찾아오셔서 "애야, 너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난 나는 유난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잘 때에도 언제나 아버지 품 속에서 잤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기에 돌아가신 그분을 늘 그리워하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갈구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방안에 누워 자는 아이들에게 물달라 할 때 물을 주시고, 아침에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껏 하나님을 설명한 그 어떤 말보다 마음 속 깊이 와 닿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그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는지.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 닮는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된 도리라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리라 기도드린다.

세워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눈빛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를 이웃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진실이, 우리의 사랑에는 긍휼이,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우리의 행실에는 의로움이, 우리의 마음에는 열정이, 우리의 일에는 충성이, 우리의 삶에는 남을 존경하는 관용이, 남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문제에 진정한 해답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2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 주신 것을 영혼의 창을 통해서 미움, 증오가 들 때 처리하는 방법을 듣게 해주셨고, 은혜와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 겸연쩍은 미소

장우형 집사(70구역)

독일에서 살던 때였다.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는 자전거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날 아침에도 다른 달과 마찬가지로 집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간호사에게 좋은 방에(?)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처 입원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우리에게 좋은 방이라는 것은 같은 암 환자 중에서도 가능하면 표정이 밝고 낙천적이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환자가 룸메이트인 곳이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오후에 입원실에 들어선 나는 집사람의 룸메이트를 보는 순간 놀라움과 실망감을 애써 감춰야 했다. “저 할머니 얼굴 좀 봐, 세상에 고약하다 고약하다 해도 저 할머니 같이 고약한 얼굴은 처음이다” 난 집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속삭였다. 정말 그 할머니의 표정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나와 얼굴이 마주치자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이 찡그리며 얼굴을 반대쪽으로 휩 돌리는 것이었다. 친절하고 밝은 표정의 환자와 룸메이트가 되어도 견디기 힘든 화학요법에 분위기가 침체되기 일쑤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집사람의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까봐 걱정하던 터인데, 이번엔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친 화학치료로 인해 집사람의 건강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고 입원하여 있는 순간 순간이 절대절명의 투쟁인데, 이제 저 고약하게 생기고 불친절한 할머니와 또 보름을 지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때 집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저 할머니의 태어났을 당시를 상상해봐. 분명히 더없이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였을 거야. 저 할머니가 저렇게 변한 것은 저분의 힘든 인생 때문이었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할머니는 유방암으로 양쪽 유방의 절단수술을 받고 화학요법을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유방절단수술로 인해 손을 올리는 것이 몹시 아프고 불편해서 머리를 빗지 못하여 잔뜩 헝클어진, 그야말로 귀신(?)과 같은 물결을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사람은 빗을 하나 들고 접근하였다. 집사람이 아무 물음도 없이 다짜고짜로 그 할머니의 머리를 빗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거의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다. 집사람은 마치 어린이를 다루듯이 “쫘”하며 상관없이 계속 머리를 빗겼다.

할머니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부드러워졌다. 이제는 병실 문을 들어서서 나에게도 비교적 상냥한 인사를 잊지 않았고, 나뿐 아니라 집사람을 찾아오는 다른 방문객에도 웃음은 없지만 인사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할머니를 병문안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름 동안 단 한 명도 할머니를 찾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입원실 문을 열자 나는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처음으로 보았다. 할머니의 긴 머리카락은 우리 나라 옛 처녀들처럼

곱게 땅아져 있었고 집사람은 “우리 할머니 예쁘지” 하며 씩 웃는다. “할머니 정말 예뻐지셨어요. 몰라 뵈겠네요.” 하며 나는 결국 한바탕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집사람도 내일 이면 비록 잠시지만 퇴원하는 날이기에 표정이 밝고 명랑하다. 오후에 담당의사가 와서 집사람에게 내일 퇴원하라고 그리고 집에서 잘 쉰 후에 보름 후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할머니의 침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한 것이다. 나와 의사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 나 혼자”라며 그렇게 슬피 우시는 것이다. 아직 독일어가 서툰 집사람이 내게 말했다. “할머니 보고 우리가 병 문안 온다고 그래. 우시지 말라고 그래. 할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가서 이야기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집사람의 상태는 이만저만한 상태가 아니다. 몸은 허약할 대로 허약하고 입 안은 현대로 빈틈이 없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픈 배를 움켜쥐고 뱃속이 썩어 간다고 호소하는 상태다. 그 예뻐던 눈은 쾅한 해골의 모습을 하고 머리털은 다 빠졌다. 밥 한술을 먹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물 한모금을 마시기 위해 온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누구를 언제 병 문안하겠다고? 더군다나 돈도 없어서 버스도 겨우 타는 우리 형편에 어떻게 이곳까지 오겠다는 말인가? “안돼!” “너는 집에서 꼼작 말고 쉬어야 해!” 그렇지만 집사람은 막무가내였다. 그 말을 안 하면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듯한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 나는 일단 할머니께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며칠 후에 병 문안 올게요.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하고 말했다. 집에 도착하고 하루 밤 지나자 집사람은 조르기 시작했다. 그 할머니께 문안 가자고, 이틀을 버티다 겨우 돈을 마련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할머니와 우리는 병원 안 정원을 거닐었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할머니를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떠든다. “저 오늘 방문객이 왔어요. 이것 보세요 (우리를 가리키며). 이 착한 한국 사람들이 나를 방문한 거라구요!”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때에야 깨달았다. 내가 어려울 때에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그때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집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내 얼굴에는 겸연쩍은 미소가 돌고 있었다.

(집사람은 자궁암을 잘 이기고 튼튼하고 사랑스런 딸아이 ‘은수’도 낳아 현재 셋이서 건강하고 즐거운 귀국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정신지체, 정서장애 아이들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히 장애가 심한 아이들에겐 하나님도, 십자가도, 구원에 대해서도 알려 주기 어렵고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 부모님에게 전하는 방법이 전부일까요? 이들에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A.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백을 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면 그 대신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고백하는 이상으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예절

### 성함을 밝혀 주세요

날마다 많은 전화들을 받게 됩니다. 3천명에 이르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의 전화와 교회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교회 사무실과 교역자실의 전화 벨소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2학기부터 여선교회원들이 전화 받는 일을 요일별로 감당해 주셔서 교역자들은 전화를 받아야 하는 업무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시는 여선교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당혹스러울 때는 전화하신 교우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도 아는 척 해야 할 때입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교역자를 알고 있지만 교역자는 그분의 음성만으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성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성명 밝히는 것을 잊었거나 음성만 들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외면하고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그것은 그분에 대한 결례가 될 것 같고 나아가 교역자로서 교우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식(?)을 폭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아는 척을 해야 합니다.

전화하실 때 본인의 성명을 밝히지 않으시면 교역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갈등으로 번민해야 합니다. 음성만으로는 3천명의 교우님들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양해하시고 교회로 전화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경퍼즐 지난호 정답

- 가로 : 1. 야고보 4. 스랍 5. 므깃도 6. 오므리 7. 구니 9. 예레미야 10. 가나 ● 세로 : 2. 고레스 3. 디도서 5. 므리바 8. 아가서 9. 예수님 11. 나오미
- 정답 보내주신 분 : 안종실 집사(22구역) 고영아 집사(12구역) 조혜은(중등부)

## 교 회 소 식

### 2000년도 공동의회 투표에서 피택된 분들

장로 :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3명)

안수집사 : 임현표 조일송 김영중A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A 김대현 박인호 한득현 장일형 김창안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20명)

권사 : 이금선 최명숙 배홍자 최윤정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A

김귀옥 이정화 김홍도 이경희B 손경숙 김성애 우숙

한규연 전해영 이지연A 우일강 손천숙A 신재숙(20명) (각 연령순)

###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 대축제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 대축제'가 감사주일(11월19일) 3부 예배 후, 오후2시부터 2층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각 구역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 : 찬양, 무용, 연극, 뮤지컬, 연주, 공트..., 시간 : 5~10분)

#### 성경퍼즐

|   |   |   |   |    |   |  |  |
|---|---|---|---|----|---|--|--|
| 1 |   | 2 |   |    |   |  |  |
|   |   |   |   | 4  |   |  |  |
|   |   | 3 |   |    |   |  |  |
| 5 | 6 |   |   |    |   |  |  |
|   |   |   | 8 |    | 9 |  |  |
| 7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가로열쇠

1. "누구든지 ○ ○ ○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장)
3.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갈릴리 어디인가? (눅 1장)
5.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나무의 이름 (눅 19장)
7.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장소 (눅 7장)
8. 누가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찬양을 부른 사람 (눅 1장)
10. 길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가? (눅 24장)

#### 세로열쇠

1. 실로암 당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의 숫자와, 귀신 들려 앞을 꼬부라져 조금도 퍼지 못하던 한 여자가 그 병에 시달린 연수. (눅 13장)
2. 예수님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맺는 열매를 설명하면서 예를 드신 식물은 무화과, 찔레, 포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 (눅 6장)
4. 예수님의 조상 중 므두셀라의 할아버지요 에녹의 아버지인 사람 (눅 3장)
6. 다음 말씀이 구약시대에 주어졌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 불리웠을까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눅 1장)
7.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어떤 짐승의 새끼를 타셨나요? (눅 19장)
9.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요셉은 유대의 어떤 동네 사람인가? (눅 23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12월 3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내주십시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416-5181)



## 감히 한 마디

김경빈 안수집사(16구역)

쳐다 보는 것만으로도, 흰 눈동자에 파란 물감이 묻어날 것 같은 너무나 파랗기만 한, 그래서 무척이나 깨끗하고 저만치 멀어 보여서, 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만 같은 가을 하늘...

풍성한 결실의 계절,

마냥 깨끗해지는 계절,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의 하얀 인격과 대화를 나누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안타깝게 바라시는 계절.

그 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이 가을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육신의 참다운 건강을 바랄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영혼의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다반사로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평화롭게 즐기는 야생동물을 정력을 위해서 살육하고, 눈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강산을 파헤치는 마구잡이 개발, 문명때문에 더럽혀지는 바다와 하늘, 나를 위해서는 서슴 없이 이웃을 아프게 하는 이기심, 이렇게 자연과 인격을 죽,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망가뜨리고서야 어떻게 건강만을 바라겠습니까.

땅을 팔라고 욕박지르는 백인 추장(미국 대통령)에게 인디언 추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재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사들이겠다는 말인가.”

이 시대를 추장의 말을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이 우리에게 소리 없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보려고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의학에서는 병의 발생 원인을 내인(內因), 외인(外因) 그리고 불내외인(不內外因)으로 나누는데, 거의 다(약 95%)를 내인(內因)으로 인한 원인으로 봅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희(喜 : 지나치게 즐거워함), 노(怒 : 지나치게 화를 냄), 우(憂 : 지나치게 근심함), 사(思 : 지나치게 생각함), 비(悲 : 지나치게 슬퍼함), 공(恐 : 지나치게 두려워함), 경(驚 : 지나치게 놀람)의 지나침으로부터 병이 발생된다고 보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질병의 거의 모두는, 인격적이지 아니한 지나치게 인간적인 욕심으로부터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천기(天氣)의 변화와 사고로 다치는 것 이외의 거의 모든 질환은,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때문에 건강해지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그것이 건강장수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그리고 또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아프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ㄷ)



## 은행나무 앞

신철범 목사

밖으로 뒤흔쳐 나갔답니다.

추심(秋心), 그 바람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 찾아 왔지요  
문고리를 걸어 매었습니다.  
창문을 뒤흔들고 열어놓고  
원장님 마음을 뺄 뚫어놓고  
고아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가을바람, 그 바람만이  
거칠게 세차게 들락입니다.

글자를 넘어 속뜻을 깨닫는 사람  
그들을 학자라 할 수 있지요  
의술을 뚫고 들어가  
생명의 신비를 보는 사람  
그들이 의사이지요  
구르는 시간의 수레바퀴  
그 축을 읽어 내는 사람  
그이들을 사가(史家)라 할 수 있지요.

그이를 목사라 할 수 있지요  
현상의 세계, 그 껍질의 두께를  
뚫고 그 분을 만나는 사람  
형제의 신음소리, 울부짖음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그이들이 주님의 사람이지요

초막 셋을 짓지 말자고  
산을 내려가자고  
가을바람에 홀날리는 고아들을  
그 영적 고아들을 찾으러 가자고  
예배당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노랗게 지상에 버립니다.

(ㄴ)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슴이 아름다움을 향해서 늘 해맑아지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라는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건강상식은 [www.indang.com](http://www.indang.com) 또는 [www.indang.co.kr](http://www.indang.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